

천혜 비경 품은 진도 관매도, 해양관광 거점 부상

내달 1일 184t급 신규 여객선 취항
1일 2→3회 운항 확대...접근성 개선
핵심자원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국내여행사연합회 등 업무협약도



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희수(가운데) 진도군수와 국내여행사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매도 직항 연계 관광상품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매 8경'의 천혜 비경을 품은 진도 관매도가 신규 직항 노선 개선을 발판으로 핵심 해양 관광 거점으로 부상한다.

3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국내여행사연합회, 한국대표여행사연합회와 함께 '관매도 직항 연계 진도 관광상품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해 양 협회장과 소속 여행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규 직항 노선을 발판 삼아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

관매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은 청정 해역을 자랑하며 전국 상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여객선 운항이 하루 2회에 불과해 당일 치기 관광에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군은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단숨에 해소하고 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184t급 최신행 여객선

을 건조했다.

이 선박은 다음 달 1일부터 관매도 직항 노선에 투입돼 하루 3회 운항하며, 진도 섬 관광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군과 양 협회는 직항 여객선과 연계한 당일과 1박2일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 전국 단위 여행사가 보유한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를 가동해 전방위적인 홍보와 대규모 모객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관매도의 핵심 자원인 해양·섬 체험 탐방을 중심으로, 진도 본섬이 자랑하는 풍성한 미식과 고유의 문화 예술을 정교하게 엮어 관광

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 폭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 협회 관계자들은 "관매도가 지닌 청정 자연환경과 독창적인 체험 콘텐츠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탁월한 상품성을 지녔다"며 "공격적인 마케팅과 매력적인 상품 구성으로 진도 관광 르네상스 실현에 전폭적인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대대적인 팸투어와 시범 운영을 거쳐 직항 여객선 첫 출항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연계 상품 판매에 돌입한다.

김희수 군수는 "새롭게 물살을 가를 관매도 직항 여객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진도 섬 관광의 폭발적인 성장에 이끌 핵심 동력이자 심장"이라며 "전국 여행사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관매도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해양 관광 1번지로 확고히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해남군, 하수도 인프라 확충 속도낸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 23개 지구
총 1천400여억원 투입 정비 박차
유지 관리 시스템 확립 주민 쾌적 ↑

이다. 총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1일 4천800t 규모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1992년 단지 지정 이후 30여년간 발목을 잡았던 고질적인 하수 처리 난제를 단숨에 해결한다.

이는 2024년 문을 연 오시아노126호빌 등과 시너지를 내며 체류형 관광 단지 활성화에 든든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탈바꿈한다. 총 1천68억원의 매머드급 예산을 투입해 10개 지구(32개 마을·2천358가구)에 하수처리 시설 10곳과 오수관로 76.69km를 매설한다.

문내 예락과 송지 등현지구는 지난해 12월 준공을 마쳤으며, 북일 갈두지구는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공정이 한창이다.

이와 함께 413억원을 들여 해남 안동지구(이

달 준공)와 화원 화봉지구(오는 7월 준공) 등 9곳의 하수관로 33.96km를 정비해 상수 침수와 악취 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하수 행정 기반도 탄탄하게 다진다. 군비 39억5천500만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12월에는 194km에 달하는 하수관로 지리정보체계(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유지 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하수도 정비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으뜸 기반 시설이자 지역 발전의 굳건한 초석"이라며 "관광단지와 농어촌을 아우르는 촘촘한 정비로 살기 좋은 청정 해남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사업계획·예산·정관 변경안 의결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가 올 한해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며 권익 향상을 향한 힘찬 달을 올렸다.

3일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에서 대의원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안을 투명하게 갈무리하고 새해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조직의 내실을 단단히 다질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회무 돌입을 알렸다.

협회는 올해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현장 실무자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털어내는 데 화력을 집중한다.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에서 대의원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연중 4회에 걸친 회원 재충전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사의 밤' 등 끈끈한 연대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무엇보다 전문기들로 뭉친 '정책제안팀'을 최전선에 새로 띄워, 현장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직접 주도하는 강력한 스피커 역할을 해낼 참이다.

이미경 협회장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 회원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곧 목포를 버티게 하는 가장 견고한 기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거친 숨소리를 정교한 정책으로 녹여내고, 오직 공지와 헌신만으로도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복지 생태계를 빛내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신안대우병원, '찾아가는 안방 진료' 추진

충족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안군은 "최근 비금면사무소에서 신안대우병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통합돌봄 대상자와 건강 취약계층에게 촘촘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병원 소속 전문 의료진과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협 수급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이

들은 현장에서 꼼꼼한 방문 진료와 간호는 물론,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신안군보건소-신안대우병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김현희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익숙한 보금자리에서 한층 편안하게 질 높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도 질병 앞에서 홀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울타리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영암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원천 차단'

9억원 투입 210ha 집중 방제

영암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 내 재확산을 막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집중 방제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포면과 신북면 일대에서 재선충병이 재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감염목 563본을 전량 제거하고 8개 읍·면 1만7천783ha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엄격하게 묶었다.

<사진>

군은 재선충병 확산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총 9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210ha 규모의 상반기 집중 방제에 본격 돌입한다.

세부적으로 5ha 소구역 모두베기, 40ha 수종 전환 방제, 165ha 예방 나무주사 등을 촘촘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위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봄·가을철 무단 이동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업체를 월 1회 이상 밀착 점검하는 등 연중 철저히 태세를 가동한다.

최진석 산림휴양과장은 "재선충병은 사람이 나랏길을 통한 인위적 확산이 산림에 치명적인 피해를 부른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주민들의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2026 영광 키즈 오픈 테니스대회' 개최

6-9일 영광스포티움 등서

한국 테니스의 미래를 짊어질 유소년 유망주들이 영광에서 열린 금빛 스트로크 대결을 펼치며 코트를 뜨겁게 달군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영광스포티움과 한수원 사택 테니스장 일원에서 '2026 영광 키즈 오픈 테니스대회'가 열린다.

꿈나무테니스재단과 한국초등테니스연맹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땀 흘려온 250여명의 초등부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일제감치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경기는 남녀 병리부와 새싹부, 10세부, 12세부

등 연령별 개인전 단식으로 치열하게 치러진다.

무엇보다 이번 무대는 주말리그 3급 공식 대회로, 개인 공식 랭킹 포인트(3·4급)가 그대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실전 경기 감각을 한껏 끌어올리고 향후 상위 등급 대회 진출을 노리는 중요한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미래의 국가대표를 가슴에 품은 어린 선수들이 부상 없이 마음껏 코트를 누비며 한 단계 도약하는 빛나는 성장의 무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굵직한 전국 단위 체육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안군, 돌봄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교사 1인당 아동 3~2명 축소

6-36개월 대상...시간당 2천원

무안군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예기치 못한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3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센터 내 시간제보육반을 4개로 확대한다. 특히 교사 1명당 전담하는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한층 세심하고 안전한 고품질 밀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시간 만큼 자유롭게 맡길 수 있으며, 부모 부담금은 시간당 2천원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온 센터는 4개의 전용 보육실과 대근육실 등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2천306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육아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시간제보육은 부모가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공공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양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